

제 13 회 중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CM1108

한글 성명: 안문적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설레게 하
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첫눈에 반
한 사람도 있고, 자신에게 격려를 보내
는 우상도 있다. 나를 설레게 하는 사
람이 주운래 선생이다. 그는 중국의 총
리이자 외교관이다. 주운래 하면 그의
전설적인 경력 외에도 뛰어난 외국어 능
력을 떠올린다. 그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6개 언어에 능통하다.
따라서, 내가 어렸을 때 그와 같은 사
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
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전공을
선택했을 때 굳게 언어학과를 선택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
국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국어를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나는 여러 언어에 능통할 수 있는 그
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참으로 새로
운 언어를 배우고 나니 매우 어렵다는

총 4 장 중 1 번째 페이지

성균관대학교



扫描全能王 创建

제 13 회 중국 성균 한글 백 일 장

접수번호: 2022-CN1108

한글 성명: 안문적

것을 깨달았다. 두 달 동안 한국어 모
음과 자음만 공부했다. 그리고 많은 문
법, 속담, 단어 등을 배워야 한다. 한국어
를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지만 모두 떨어졌
다. 이것은 나를 매우 서운하게 한다.
언어 공부는 소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
구가 내가 최근에 서운하다는 것을 알
고 함께 친진 여행을 가지로 결정했다.
나는 ^{친진에 있는} 삼개 대학에 온 후에 친구의 고
심을 알았다. 이 대학은 주온래 총리의
모교이다. 친진을 여행하는 동안, 주온래
총리의 경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였다.
그는 언어를 배울 때 매우 끈면하고
엄밀하다. 삼개 대학교 재학 중 영어공부
를 열심히 한 뒤 일본, 프랑스 등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 기간도 현지 언어
습득에 최선을 다했다. 번역을 할 때



제 13 회 중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CN1108

한글 성명: 안문적

어떤 잘못된 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경험을 알고 나서야 나는 언어를 배우는 데는 고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로 돌아온 나는 승패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언어 공부는 평생의 일이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후, 나는 유창하게 한국어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OPIK 시험 고급 증명서도 성공적으로 땀다. 그 동안 수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회의에 빠졌지만 주운래 총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더 나아갈 힘을 찾을 것 같다. 나는 훌륭한 외교관이 되고 싶다. 나의 꿈에서 한 걸음이 더 나아갔다. 좋은 언어 환경이 있어야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제 13 회 중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CN1108

한글 성명: 안유적

으로 유학을 갈 것이다, 그 후 일본,
유럽, 미국 등에도 가서 더 많은 언어
를 배우고 싶다,
나는 주운래 총리를 내 인생의 본보
기로 삼았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나는 훌
륭한 외교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번역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쓸 것이다.

총 4 장 중 4 번째 페이지

 성균관대학교



扫描全能王 创建